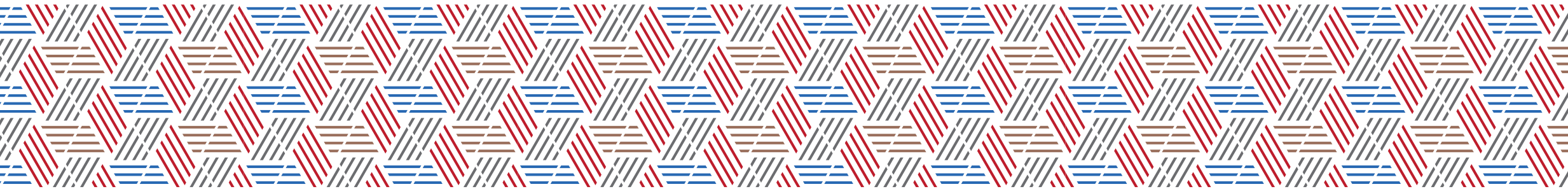


2015년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 성과 보고집



2015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
성과 보고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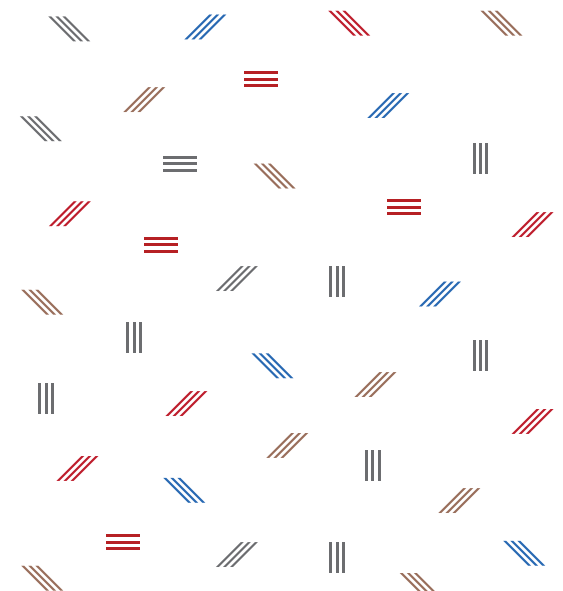
THE PERFORMANCE REPORT
OF INTERNATIONAL RESIDENCY
DISPATCH IN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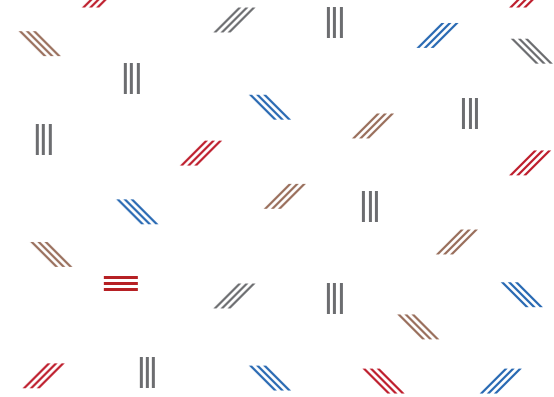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부산문화재단
Tel. 051.744.7707 / Fax. 051.744.7708~9
www.bscf.or.kr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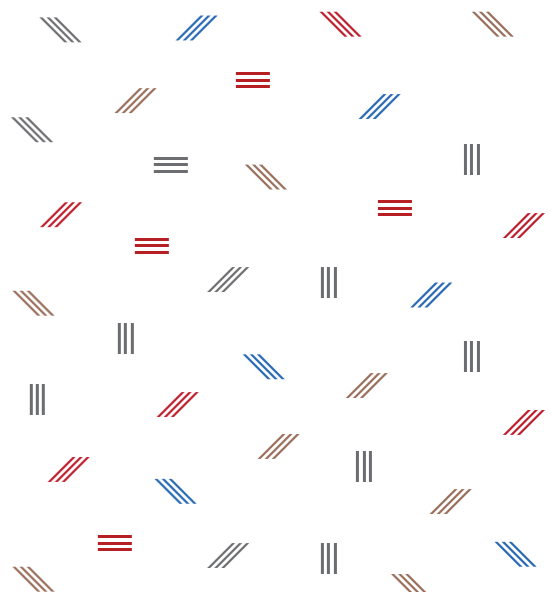




2015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 성과 보고집

THE PERFORMANCE REPORT
OF INTERNATIONAL RESIDENCY
DISPATCH IN 2015



2015 국제레지던시 파견사업 성과 보고집

미얀마

한국-미얀마 수교 40주년 기념 초청 교류전

“Minglaba Korea” (* Minglaba는 미얀마 현지 언어로 ‘안녕하세요’란 뜻입니다.)

The 40th Anniversary of Korea- Myanmar Diplomatic Relations Invitational Exhibition

참가기간 2015. 7. 29 ~ 2015. 8. 23

장소 미얀마 양곤

협력 및 진행 양곤 뉴트레저 갤러리(미얀마 소속 작가)

책임 코디네이터 김지은

참여 작가 조영숙, 김영미, 김혜숙, 정안용, 박태홍, 박은생, 박주현, 서준호



일본

2015 아트라인-두 개의 섬(쓰시마, 히로시마)

참가기간 2015. 7. 25 ~ 2015. 8. 25

장소 히로시마, 쓰시마

협력 및 진행 히로시마 예술센터, 히로시마 시립대학, 이즈미 미술관,

쓰시마 아트 판타지아 실행위원회, 쓰시마시, 토수이관, 쓰시마시 민속자료관

책임 코디네이터 정만영

참여 작가 김범수, 김수진, 김남경, 김다혜



Myanmar

한국-미얀마 수교 40주년 기념
초청 교류전 “Minglaba Korea”

한국-미얀마 수교 40주년 기념 초청 교류전 “Minglaba Korea”

※ Minglaba는 미얀마 현지
언어로 '안녕하세요'란 뜻입니다.

프로젝트명

한국-미얀마 수교 40주년 기념 초청 교류전 “Minglaba Korea”
The 40th Anniversary of Korea- Myanmar Diplomatic Relations Invitational Exhibition

프로젝트 기간 2015. 7. 29 ~ 2015. 8. 23

장소 미얀마 양곤

협력 및 진행 양곤 뉴트레저 갤러리(미얀마 소속작가)(레지던시 **장소** : 양곤 골든파크 국제 복합 스포츠 센터)

후원 부산문화재단

책임 코디네이터 김지은

참여 작가 김지은, 조영숙, 김영미, 김혜숙, 정안용, 박태홍, 박은생, 박주현

현지 코디네이트 박태홍, 서준호, 현지 통역 : 라민톤

행사 및 활동

1. 8월 1일 10시 New Treasure Art Gallery Yangon : 01. August 10:00

The 40th Anniversary of Korea- Myanmar Diplomatic Relations Invitational Exhibition

한국-미얀마 수교 40주년 기념 초청 교류전(뉴트레저 갤러리 소속작가 민웨웅 작가 및 양국 작가들의 교류전시)

Artist 김지은(Kim jeeun), 조영숙(Cho youngsook), 김영미(Kim youngmi), 김혜숙(Kim hyesook), 정안용(Jung anyong), 박태홍(Park taehong), 박은생(Park eunsaeng), 박주현(Park juhyun)

Coordinator 김지은(Kim jeeun), 박태홍(Park taehong), 서준호(Seo Junho)

2. 8월 1일 17시 New Treasure Art Gallery Yangon : 전시 리셉션 워크숍 프리젠테이션

exhibition Reception collaboration Workshop presentation : 01. August 17:00

3. 8월 2일 17시 뉴 제로 아트스페이스 아트빌리지스쿨 미술교육수업

new zero art space : art village school : 02. August 17:00

4. 8월 19일 09시 Dala : Myanmar&Korea street 마을길 봉사활동 : 19. August 09:00

5. 8월 17일 18시 The 40th Anniversary of Korea- Myanmar Diplomatic Relations Invitational

Exhibition 두 번째 전시 (뉴트레저 갤러리 소속 작가 참여) : 17. August 18:00

언론 매체 성과를

1. 현지 언론 매체 : 채널5 dally eleven News, 미얀마 국영MRTV, MRTV4, sky net, Local news

5개의 방송국 취재 및 방영, 미얀마 현지 한인 잡지 소개 - 미얀마 문화소식지, 미얀마 3개의 신문에 전시 관련 기제

2. 국내 언론 매체 : 부산 미협 미술지(9월에서 10월 예정) 부산 예총 홍보지(9월에서 10월 예정)

부산문화재단 지원금 15,000,000원

머리말

Introduction

2009년 기획자 서준호(스페이스 오뉴월 대표)를 주축으로 지속적으로 동남아 파견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3년 파견사업시 부산의 미얀마 노동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레지던시 사업을 알리고 미얀마 방문 시 그들의 필요와 현지의 상황을 듣고 후원을 구성하였다. 2014년 12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담 행사의 하나로 작가 민웨웅 외 미얀마 작가 8명은 부산 시립미술관 전시 중 작가 박태홍(목공예, 설치)를 통해 부산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제안했고, 이번 2015년 국제 레지던시 ‘밍글라바’ 팀을 구성하여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 애초 프로젝트 제목을 미얀마어로 ‘안녕하세요’인 ‘밍글라바’로 정했으나 전시 제목을 ‘한국 미얀마 수교 40주년 기념 전시’로 정해서 진행했다. 부산문화재단 지원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Minglaba)팀은 미얀마에 집중했다. 박태홍, 김지은, 박은생, 조영숙, 김혜숙, 박주현, 김영미, 정안용은 부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로서, 이번 ‘밍글라바’ 프로젝트 ‘한국 미얀마 수교 40주년 기념 전시’에 각기 다른 전공으로 모여 기획에 관해 고민하였다.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기획자 서준호가 합류하여 전체적인 기획을 함께 구성하게 되었고 2015년 미얀마



레지던시 프로젝트 ‘밍글라바: 한국 미얀마 수교 40주년 기념 전시’를 최종 계획하게 되었다.

미얀마는 676,578km²의 넓이로 한반도의 3배 정도의 크기이다. 인구는 약 55,746,253명으로 버마족이 69~70% 정도로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산족이 8.5%로 두 번째로 큰 종족집단이다. 이외 카렌족(Karen) 7%, 라카인족(Rakhine) 4%, 중국인(Chinese) 3%, 인도인(Indian) 2%, 몽족(Mon) 2%, 기타종족 5% 순이다. 이들 소수종족들은 대부분 고유 언어를 가지고 있다.

미얀마는 1886년부터 1948년까지 영국과 일본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는 심한 탄압을 받았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다시 지배민족이 되었다. 한국 역시 일제의 식민 지배 시기가 있었던 만큼, 한국과 미얀마의 문화는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밍글라바 팀은 미얀마 양곤 현지의 갤러리에서 레지던시 기간 동안 개인작업과 협업작업의 발표를 통해 몸으로 부딪치며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또한 그곳의 다양한 미술, 종교 공간과 현지 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한 미얀마 문화의 다각적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추후 더욱 성숙한 교류의 바탕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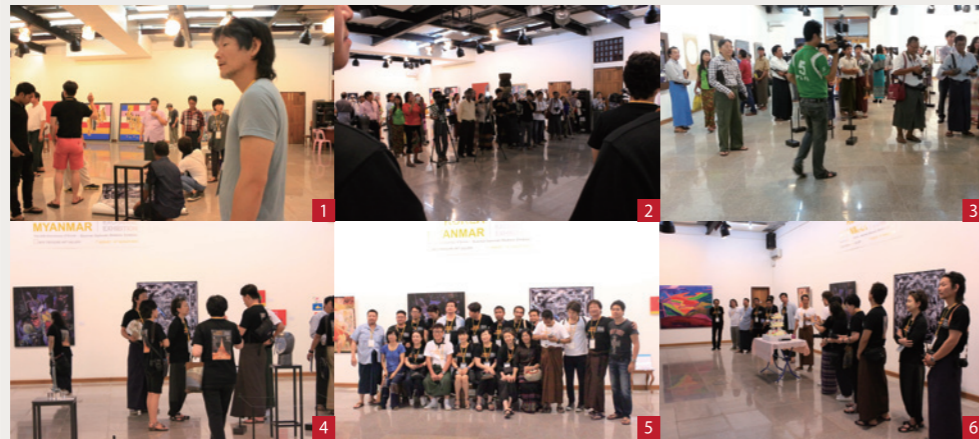
**미얀마 레지던시
및 참여 프로젝트 소개**
New Treasure
Art Gallery Yangon

— 뉴트레저 갤러리는 현재 미얀마 양곤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얀마 대표 작가인 민웨웅(Min Wae Aung)이 전시, 워크숍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디렉터인 민웨웅은 미얀마의 대표적인 작가로 회화작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뉴트레저 갤러리는 미얀마 현대미술의 대표적 기관으로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한국의 큐레이터 미술 관계자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 갤러리를 통해 미얀마 현대미술의 현 주소를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철저한 레지던시의 준비 과정과 메일, SNS 교류를 통해 미얀마와 한국 작가의 간극이 쉽게 좁혀졌고, 처음 만난 미얀마 작가들과 서로의 작업에 대해 설명하고 소개하는 워크숍 시간을 통해 서로가 더욱 친밀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인종, 언어, 문화, 종교, 생활 등 서로 간의 차이를 배려하며 그들의 작업과 우리의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에 진행되는 밉글라바 프로젝트는 2015년 미얀마 작가들과 함께 개별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도시 발전을 살펴보고, 협력기관인 뉴트레저 갤러리와 국제복합스포츠센터(National Sports Complex)에서 다양한 소재를 이용

하여 그들 삶에 대한 예술적 개입의 방법을 통해 고민하고, 작업했다.
현재 골든파크(국제 복합 스포츠 센터)는 현지인들과 함께 한국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 New Treasure Art Gallery Yangon 전시 설치중 2~6. 전시오프닝 및 촬영현장

뉴트레저 갤러리 전시
Myanmar Diplomatic
Relations Invitational
Exhibition vol.1

— 참여 작가들은 서로 간의 작업과 공간을 보고 토의한 뒤 작업과 어울리는 공간에 대해 논의하였다. 열악한 도구와 환경 속에서 서로가 배려하며 작업에 임하였다. 특히 미얀마 작가와의 언어에 대한 소통의 부재를 라민톤(현지 통역)의 도움으로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 갤러리의 흰 벽은 미얀마와 한국의 작품으로 조금씩 채워져 갔고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전시 설치가 끝났다.



전시 오프닝행사에는 디렉터 민웨웅 작가의 도움으로 언론사와 가수, 배우, 문화부, 외교부 공무원, 한국 대사관 직원 등 미얀마의 셀러브리티들이 참석했고, 채널5 dally eleven News, 미얀마 국영 MRTV, MRTV4, sky net, Local news 5개의 방송국이 취재 및 방영했다. 또한 미얀마 현지 한인 잡지 및 3개의 신문에 전시관련 소식이 게재되었다.

아티스트 워크숍

— 부산문화재단 국제 레지던시 The 40th Anniversary of Korea-Myanmar Diplomatic Relations Invitational Exhibition 한국-미얀마 수교 40주년 기념 초청 교류전 (이하 밉글라바 전시)은 김지은, 박태홍, 조영숙, 김혜숙, 김영미, 박은생, 박주현, 정안용 8명의 작가들과 뉴트레저 갤러리의 작가이자 디렉터인 민웨웅 외 8명의 미얀마 작가들과 함께 서로의 작업을 보고 서로의 작업에 대해 소통하였고 밉글라바 두 번째 전시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밉글라바'는 한글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로 서로 간의 교류를 나타내는 전시테마로 정했다. 골든파크의 공간은 일반 미얀마 현지인들이 자주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현지 예술가들과의 협의로 전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골든파크
국제 복합 스포츠센터
National Sports
Complex 전시**
Myanmar Diplomatic
Relations Invitational
Exhibition vol.2

— 한국 작가들은 골든파크 스튜디오에 있는 동안 미얀마의 문화를 배우고 실생활의 재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작업에 몰두했다. 참여 작가들은 골든파크의 공간적 특성과 설치방법을 토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언어적 소통이나 재료 구입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지 미얀마 작가들에게 도움을 청해 시장과 그 주변의 재료를 물색하게 되었고, 서로 간의 배려로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현지 통역인 라민톤의 도움으로 미얀마와 한국 작가 간의 소통이 쉬웠고 작가들이 모여 아카이빙이나 작품 전시를 위한 토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종을 이용하여 바람의 세기에 따라 소리를 들려주는 설치작업을 진행한 박태



홍 작가와 박주현 작가, 현지 어시스트와 함께 와이어를 하나씩 접합하여 설치작업을 진행한 박은생 작가, 미얀마 작가와 아웅 보족 마켓을 돌며 공간을 이용하여 그곳의 열대식물을 다른 시각으로 표현한 정안용 작가 등 레지던시 작가 8명의 작업을 골든파크에서 선보였다. 현지 작가인 탄윈, 조원페 등 4명의 미얀마 작가들도 한국 작가와 함께 공간에 대한 고민을 작품에 담아 전시하였다. 밉글라바 골든파크의 두 번째 전시를 통해 원 스웨와 탄윈을 2015년 10월 부산 국제 조각전 “지역을 넘어 세계로-1”에 초대하게 되었고, 미얀마와 부산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기약하며, 시시각각 변해가는 미얀마의 경제, 문화활동에 부산 예술가의 기여를 확산한다. 그리고 그것들 통한 참여 작가들의 국제적, 문화적 이해도의 성장과 우리 지역사회로의 환원을 기대한다.



다시 메우기 5m 이내 가변설치 / 미얀마 / 닥종이(쫄치) / 2015



These are not flowers 2015 10m 이내 / 가변설치 / 와이어, 스펀지 / 2015



바람 불어 좋은날 4.5m x 2.5m / 아크릴 / 2015



돌맹이 2m x 1m 1.3m / 철사 / 2015



숫대 20m 이내 / 가변설치 / 나무, 함석, 종 / 2015



composition 240cm x 80cm / 천, 아크릴, 실 / 2015



사람 120cm x 135cm x 160cm / 타일, 시멘트 / 2015

**뉴 제로 아트스페이스
(New Zero Art Space)
아티스트 빌리지
현지 어린이 미술 교육**

— 8월 2일 밍글라바 팀은 뉴제로 아트스페이스의 디렉터 에이코(Aye Ko)와 큐레이터 헤이맨(Hay mann)의 도움으로 뉴제로 아트스페이스 및 그들의 새로운 공간인 아트빌리지를 탐방하였다.

뉴제로 아트스페이스는 2013년 미얀마 레지던시 중 방문한 바 있으며 현재 전시 및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뉴제로 아트스페이스는 미얀마뿐 아니라 방콕,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인접국들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발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고 동남아를 넘어 세계 각국의 작가, 미술 관계자들이 이곳에 방문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에이코는 최근 미술관을 건설 중에 있으며 이미 일부 완공된 건물에서 저소득층 미얀마 학생들의 미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밍글라바 팀은 통역을 통해 아티스트빌리지 스쿨에서 드로잉 및 미술 수업을 진행하였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간식거리와 음료를 전달하였다. 에이코는 현재 3에이커(ac)의 땅을 매입하고 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에 있다.

뉴제로 아트스페이스는 동남아미술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앞으로 한국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전망이다.



뉴제로 아트스페이스 아트빌리지 교육



**Myanmar&Korea
Street 마을 길 봉사활동**

— 미얀마는 열대 몬순기후의 영향을 받아 5월에서 9월 긴 우기를 거치는 나라로, 해마다 홍수 피해가 크고 작게 일어난 나라이다. 올해는 특히 폭우로 인해 주택, 교량, 도로, 농지 등이 침수되어 파괴되었고, 특히나 2015년 동남아 지역 중 미얀마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사망자 및 피해자 수는 다른 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미얀마는 기부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는데 도로 곳곳에 홍수 피해 수재민을 위한 모금함을 들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많았다. 미얀마는 영국 자선구호재단(CAF)에서 135개국을 대상으로 금전기부, 봉사활동 등을 평가한 세계기부지수(WGI)가 미국과 함께 1위로 나타났다. 레지던시 팀이 양곤 골든파크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는 우기로, 체류 기간 중에도 비가 자주 내렸다. 이곳 대부분의 땅은 진흙 길이었으나 양곤의 도심만이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었다. 미얀마의 시멘트는 한국의 시멘트와 달리 조금 특이한데 기온 차이로 인해 한국에 비해 건조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 이런 이유로 시공이 용이하여 조각 부분 중에서도 시멘트 조각이 발달했다.

골든파크 스튜디오 및 전시와 함께 레지던시 작가들은 뉴트리저 갤러리 민웨웅 작가의 조언으로 양곤 인근 지역 달라의 주민과 'Korea&Myanmar Street: 마을길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고, 미얀마의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빵과 음료 및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2015년 미얀마 팀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
참여 작가 약력**



김지은 개인전 13회(한국, 미국, 일본)

국제교류

- 2015. 1 한국 현대 조각보전(후쿠오카, 일본) 전시기획
- 2014. 2 하와이안 퀼트에서 부산 퀼트로(하와이, 미국) 전시 기획 Vermont Studio Center, 버몬트, 미국
- 2011. 1. 2 ~ 2011. 2. 25 약 2달간 아시안 아티스트 펠로우쉽 지원작가

전시기획

한국현대조각보전(2015. 1. 23 ~ 25) Dazaifukan, Dazaifu, Fukuoka, Japan
 Hawaiian Quilt to Busan Quilt(2014. 2. 4 ~ 11)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the UHM,
 Honolulu, Hawaii, U.S.A.

소장 Collection

하와이주립 문화예술진흥원, 호놀룰루, 하와이, 미국
 Hawaii State Foundation on Culture and the Arts, Honolulu, Hawaii
 호놀룰루 아카데미 오브 아트, 호놀룰루, 하와이, 미국
 Honolulu Academy of Arts, Honolulu, Hawaii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아트 뮤지엄,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미국
 San Francisco Asian Art Museum, San Francisco, CA

조영숙 신라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서양화 전공) 및 동대학원 졸업

- 2015 사랑나눔전(부산/해운아트갤러리)
 해운아트갤러리 봄기획초대전 흔들리며 피는꽃전(부산/해운아트갤러리)
 전업작가협회 부산지회 소품초대전(부산/해운아트갤러리)
- 2014 제6회 조영숙 개인전(부산/해오름갤러리)
 선과색 정기전(서울/인사아트센터)
 부산미술57인전(부산/해운아트갤러리)
 평면에 잠기다전(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
 블랑블루 호텔아트페어(서울/엠버서더호텔)
- 2013 봄 ...바람이 분다전(부산/갤러리 봄)
 여름 소품 페스티벌 (부산/해오름 갤러리)
 부산화랑아트페어 2013 BAMA(부산/ KNN 월석아트홀)
 부산의 향기, 부산의 작가전(동경/주일한국대사관한국문화원)
 그 외 각종 단체전 및 기획 초대전 180여회
- 2005 ~ 2014 아트페어 및 부스전 5회(부산, 울산, 서울, 파리)
 1997 ~ 2014 개인전 6회(부산, 서울)

김영미 부산대학교미술학과 조소전공 졸업 / 개인전 12회

- 2015 내안의 작은아이(갤러리아드/부산)
- 2014 내안의 작은아이(팬트하우스갤러리/부산)
 시간의 기억(갤러리중앙202/대구)
 Miya's blue [반복] (도도엔갤러리/부산)
- 2013 Miya Blue House(갤러리아배/부산)
 Miya's blue(희 갤러리/양산)
- 2012 Never Ending Story(에쿠스 갤러리/부산)
 기억에 매달린가방(아트스페이스 움/부산)
- 2009 take a walk(시립미술관내 시민갤러리/부산)
- 2007 "푸른 그림이 있는 그릇전"(조부경갤러리/부산)
- 2006 김영미도자전(크라프트스토리/부산)
- 2005 김영미도자전(시립미술관내 시민갤러리/부산)

기획전 및 그룹전

- 2015 화랑미술제(갤러리아드/코엑스, 서울)
 인형전(1부 소민아트센터, 2부 갤러리움/부산)
- 2014 네시오분전 (도도엔 갤러리/부산)
 젊은시선전(소민아트센터/부산)
 미술! 삶에들다(시민회관 한솔갤러리/부산)
- 2013 27인의 나눔. 풍요(롯데갤러리 광복점/부산)
 한-일현대아트교류전(HEIS GALLERY/후쿠오카)
 한솔미술공예페스타(시민회관 한솔갤러리/부산) 외 200여 회 단체전

김혜숙 1980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 2014 5th QFIK 초대개인전(at센터/서울)
 2nd BIQF 초대개인전(백스코/부산)
 제3회 BFAA부산국제아트페어(백스코/부산)
 남부국제현대미술제(부산시민공원 미로전시관/부산)
- 2013 19th European Patchwork Meeting Contest Grand Prix 수상
 (Ste Marie-aux-Mines/France) 외 단체전 150여 회 참가
- 2004-2014 한국화 및 퀼트개인전 10회(부산, 서울, 북경)

**2015년 미얀마 팀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
참여 작가 약력**



정안용 부산대학교 대학원 조소전공 졸업(2014) /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조소전공 졸업(2009)

2015 환영展(프랑스 문화원)부산, 대구 외 총 5회 개인전

국제교류

2013 함부르크 부산 중국 국제교류展(구 부산진 역, 부산)

콜라보레이션

2014 록밴드 '블랙홀콘서트' 아트플러스 콜라보레이션(예술지구p, 부산)

2013 대선주조 그리위에 콜라보레이션(대선주조, 부산)

단체전

- 2015 상하이 아트페어(상하이 마켓, 상하이)
- 청주국제 아트페어(청주문화 산업단지, 청주)
- Art edition2015(Marco Polo Hong Kong Hotel, Harbour City, 3 Hong Kong)
- Asia Hotel Art Fair Seoul 2015(콘래드 서울, 서울)
- LANDSCAPE SPACE 1326(블루스톤, 서울)
- 팔공팔오전(유진 갤러리, 부산)
- 아트부산(백스코, 부산)
- 지역작가 지원 멘토링전(신세계백화점 갤러리, 부산)
- 해체둔병전(구백제병원, 부산)
- BS금융그룹 청년작가 평면미술전(BS갤러리, 부산 외 총 50여 회 단체전)

박태홍 개인전 4회 (1997, 2002, 2012, 2012)

- 2015 프랑스생테티엔 디자인 비엔날레 한국 특별전 이로재 창립 25주년 기념 가구전(서울옥션, 서울)
- 2011 한국공예가회 협회장상
- 2014-2011 미얀마 건축프로젝트설계, 디자인시공
- 2009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초대작가
- 2010 부산감천문화마을 공공미술 프로젝트실행 운영위원 및 참여작가
- 2008 노무현 대통령 집무실, 사저 가구 디자인 제작

박은생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조소과 졸업

개인전

- 2007 제7회 박은생 개인전(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 2002 제6회 박은생 개인전 "...속에 속..."展 엠태익갤러리 기획

- 2001 제5회 박은생 개인전 ART IN ORI기획제 "자르고, 뚫고, 접고"(ART IN ORI, 부산)
- 1999 제4회 개인전 공간화랑 기획(공간화랑, 부산)
- 1998 제3회 드로잉전 갤러리 메사기획(갤러리 메사, 부산)
- 1997 제2회 개인전 스페이스 월드기획(스페이스 월드, 부산)
- 1996 제1회 개인전(다다갤러리, 갤러리 메사, 부산)

박주현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조각과 졸업(조소전공)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대학원 졸업(조소전공)

개인전

- 2013 TOOL STORY 1-2 SPACE TIME(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 TOOL STORY 1-2 SPACE TIME(이연주갤러리, 부산)
- 2011 TOOL STORY(또따또가 전시장, 부산)
- 2009 TOOL STORY(비올갤러리, 서울)
- TOOL STORY(임화랑, 부산)
- TOOL STORY(한전프라자 아트센터 기획전시실, 서울)
- 2008 TOOL STORY(큐브스페이스, 서울)

국제교류

- 2014 캄보디아 국제 레지던시 사사바삭 프로젝트 참여
- 2013 "TOUCH" Myanmar& Korea Art Exchange Project(New Zero Art Space, Myanmar)
- 2012 Watagata 한일 교류전(용두산 갤러리, 부산)
- Beyond Reality(Able fine Art NY Gallery, 뉴욕)

단체전

- 2013 만지는 3차원 아트 특별전(BS 부산은행 갤러리)
- Exhibition Project 4인전(선텀 아트스페이스, 부산)
- 2012 지역네트워크(비밀-오차의 범위)展 (부산, 광주시립미술관 아르코미술관 기획)
- 2011 도구적 조우(박주현, 아사히 히토 2인전) (LVS갤러리, 서울)
-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한국아트 갤러리, 부산) 외 120여 회 단체전

**양곤의 한국 작가
레지던시 후기**

— **김지은**

2015년 부산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국제 레지던시 파견 사업에 선정된 "밍글라바" 팀은 26일간 미얀마 활동을 완료했다. 당초 사업내용과 일정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활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두 번의 전시를 통해 미얀마 현지 예술가들과 교류를 나누었다. 첫 번째 전시는 미얀마의 국민작가로 불리는 민웨웅 작가가 운영하는 뉴트레저 갤러리에서 개최(8/1~8/10)했다. '한국-미얀마 수교 40주년 기념 초청 교류전'이라는 명칭 아래 부산과 미얀마 작가들만의 교류가 아닌 국가 간의 수교에 따른 예술교류의 확대를 이루어졌다. 전시 기간 중 양국의 참여

작가들은 본인들의 작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전시장에서의 만남을 넘어 심도 있는 작품세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두 번째 전시는 국제 복합 스포츠센터 - 골든파크에서의 설치 전시 개최(8/16 ~ 현재)하였다. 레지던시 참여 작가 모두는 한국문화의 체험 장소로 미얀마에서 주목받는 골든파크의 공간과 호응하는 설치물을 제작, 전시하였다. 작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입과 제작 방법에 필요한 도구 및 전문 기술 부분은 미얀마 현지 작가들의 아낌없는 협력으로 가능했다. 이 설치 전시에는 4명의 미얀마 작가도 참여했으며 그들의 작업은 골든파크에 기증하였다. 작품 제작과 설치를 통해 양국 작가들의 돈독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2. 양곤 시내의 문화 유적지 및 양곤대학, 양곤 예술고등학교, 양곤 주요 박물관 및 갤러리 방문을 통해 미얀마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양곤 시내를 벗어나 미얀마의 대표적 문화예술 유적지인 바간과 인레의 공방을 방문하여 미얀마의 풍성한 문화예술을 접하였다. 그들의 전통 예술, 문화의 전수와 문화상품으로의 개발에 대한 우수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미얀마 레지던시 시작 전부터 준비해온 도시 빈민들의 주거지인 달라지역 도로포장공사 봉사를 완수하였다. 철저한 작업 시행 사전준비와 미얀마 지역을 이미 다녀온 작가들의 현지사정 이해와 인맥 및 통한 지원덕분에 이번 레지던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작가 개인의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은 물론, 개인의 작업에 대한 도전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렀다고 생각한다.

다. 이번 레지던시는 개인의 발전과 양국 작가 간의 교류를 통한 양국 작가들이 더욱 세계적인 시야를 가지게 되었고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박태홍**

2년 넘게 미얀마를 여러 차례 다녔지만, 이번 작가들과의 레지던시를 떠나는 일이 내심 얼마나 흥분되었는지 모른다. 우리의 공예, 회화, 조각, 설치 등 30대~50대 다양한 연령층으로 작가를 구성했고 모든 것이 설렘으로 다가왔다.

반갑게 맞이해주는 미얀마 작가들. 그들과 함께 땀 흘린 봉사활동, 협업으로 완성된 현지에서의 전시, 끈끈해진 우정...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창조적 작품세계로 우리를 뗏어준 행복한 여행이었다.



— **박은생**

보여줄 것은 보여주고 감출 곳은 감추는 것. 하늘에 구멍이라도 있는지 비가 오는 이른 아침에 미얀마에 도착했다. 덥덥함과 축축함이 동시에 밀려온다. "아이고, 덥덥해라" 우기라고 하니 이해가 된다.

변덕 심한 놀부 심보 같은 날씨와 다르게 미얀마인들은 정이 드니 참 반가웠다. 옆 동네 놀러온 것 같은 분위기다. 이 와중에 양곤 예술고등학교 교장 선생 내외와 저녁 식사를 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미얀마 얘기였다.



입고 있는 옷의 특징이 무엇인지 조심스레 물어보니 "보여줄 것은 보여주고 감출 곳은 감추는 것"이라고 한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다. 여성미를 살린 허리와 허프는 정말 아름답다 생각하고 있었다. 멋진 표현이며 생활상과 사고가 다른 외국인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간결하고 멋스럽다.

듣고 보니 여자 옷차림에 눈길이 더 간다. 보여줄 것은 보여주는 미얀마를 생각한다. 옷차림처럼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문화를 가진 그곳이 걱정되는 이유는 뭘까? 옆 동네를 걱정하는 친구처럼...

빠른 변화에 정체성을 잊지 않고 발전하는 그곳을 생각한다. 내가 오지람이 너무 넓은 지도 모르겠다. 더 높고 푸른 하늘을 다시 보고 싶어지는 하루다. 무더운 날씨에 가끔씩 내리는 비도 그리워진다.

2015년 이른 아침에 미얀마를 생각하면서.

**양곤의 한국 작가
레지던시 후기**

— **조영숙**

재료를 사러 멀리 떨어져 있는 마켓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탈 때면 코를 찌르는 자스민 향기와 함께 양곤의 하루가 시작된다. 내가 작업하던 곳은 붉은 양철 지붕으로 덮인 오픈형 건물이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수시로 비를 뿌리는 열대우림지역 먼 하늘에 있던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와 하루에도 서너 번씩 장대비를 뿌려대던 스펙타클한 양곤의 습하고 무더운 일기 속에 물감을 풀며 하루를 시작했다.



또 다시 뜨거운 양철 지붕 위로 거대한 장대비가 쏟아지고 이곳에 등지를 튼 길냥이 한 마리가 어느새 옆에 와 애교를 부려댄다. 열대성 스킨, 미얀마 전통 의상 론지, 자스민 향기, 황금색 사원, 요술처럼 숨어 있던 골목골목의 남루한 시장들.

저녁이면 시장에서 꽃을 사는 론지를 입은 남자들, 향기 짙은 하얀 꽃을 실에 꿰어 도로를 누비며 꽃을 팔던 청년들, 한국가요를 불러주며 모금을 하던 아름다운 청년들. 이들의 순박하고 친절한 미소와 함께 먼 나라였던 미얀마는 어느새 친구처럼 가까이 와 있었다. 오감을 동원해 이 나라를 느껴보자, 'be happy'라는 문구처럼 나는 정말 행복했다.

양곤에 있는 동안.

— **김혜숙**

알지 못하거나 본 적이 없는 낯선 어떤 것에 대한 기대와 불안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이다. 나에게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그런 존재였다. 이번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인한 미얀마와의 문화 교류 기회는 해외 활동 경험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작품 활동의 의욕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미얀마는 언론 매체에 보도되듯 각종 정치적 상황 때문에 과연 작가들이 어떤 식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해하던 터였다. 직접 가서 보고 겪은 인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작가는 여전히 작가의 본분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유대감을 느끼고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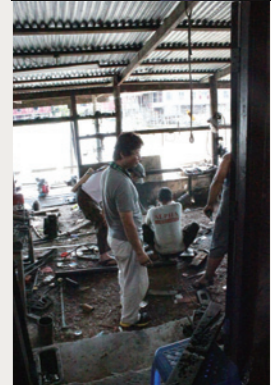
— **김영미**

낮선 듯 친숙한 조용한 미소의 나라 미얀마.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낯선 곳에 대한 설렘과 현지에서의 작업을 통한 현지 작가들과의 교류 속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행한 작가들과 함께여서 더 행복한 미얀마의 여정이었습니다.

— **박주현**

우선 미얀마 현지에서 두 번의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봉사 활동도 진행하다 보니 일정이 빡빡하였습니다.

2015년 8월1일부터 10까지 첫 번째 전시를 뉴트레저 갤러리에서 가졌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한국대사관 영사님과 미얀마 방송국 5개 채널에서 취재를 왔었고, 신문에도 전시 소개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얀마 국교 40주년 기념으로 미얀마의 국민 작가 민웨웅 선생님께서 한국 작가들을 초청하여 미얀마 작가 9명과 한국작가 8명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부산의 작가들은 2013년부터 미얀마 국제레지던시를 통해 문화 교류를 시작하여 뉴제로 아트스페이스(디렉터 에이코)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현대미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작년 12월 한-아세안 정상 회담이 부산에서 열렸을 때, 부산시립미술관이 미얀마 작가들을 초청한 계기로 박태홍 선생님과 미얀마 10명의 작가들과 만나서 전시뿐만 아니라 부산의 문화를 소개하면서 계획되었습니다.

전시 성과로, 이번 미얀마 레지던시 이후 10월 10일 열릴 부산국제조각전에 두 분의 미얀마작가를 초대해 부산예술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열릴 예정이며, 앞으로 양국의 작가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양곤의 한국 작가 레지던시 후기

— **정안용**
미얀마의 아침은 청명하다. 풀 냄새와 함께 새소리가 나를 반기고 매일 새로운 이미지들이 나를 설레게 했다. 거짓 없는 웃음으로 화답하는 아이들과 자연에 순응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며 순수함을 배웠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일색인 디지털 시대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한다. 이곳은 내가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내 아버지 세대들이 어렸을 적 시절과 비슷하다고 들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고, 땅은 아스팔트보다 진흙길을 더 많이 봤던 것 같다. 유럽과 한국에 비해 문화적 시간이 멈춘 공간들을 본 듯하다.

우리는 양곤예술고등학교 교장 모노와 뉴제로 아트스페이스 대표 에이코, 미얀마의 국민작가 민웨웅 작가 등 미얀마 미술인들과 그들의 미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과 한국의 미래를 제시하며 교감하였다.

우리가 방문한 곳 중 뉴트레저 갤러리와 뉴제로 아트스페이스, 양곤 예술고등학교는 나를 성장시킨 미술과는 조금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 전통문양과 미얀마 특유의 불교미술, 사원의 건축기술과 양식,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미술재료 등 그들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교육을 받고 있었다.

바간이나 인레, 양곤의 유적, 또는 옛 미술품들은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었다.

한 달 가까이 미얀마에 있으면서 내가 바라고 지향하는 개인적 성향들은 그들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은 것 같다. 이번 레지던시가 끝이 아닌 시작으로 지구촌 곳곳의 미술인들을 만나면서 더욱 좋은 작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한 하늘 아래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나의 직업관과 지향하는 세계관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끝으로 이러한 기억과 이미지를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준 박주현 작가를 비롯하여, 함께 동고동락한 미얀마 프로젝트 작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예술로 나누는 마음
서준호 스페이스 오뉴월 디렉터,
미얀마 레지던시 프로그램
협력 큐레이터

— 올해는 한국과 미얀마가 수교한지 40년이 되는 해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많은 교류가 있었다는 걸 짐작해 본다. 하지만 1983년 그 유명한 아웅산 국립묘지 폭탄 테러 사건 이후 당시 버마였던 미얀마와 수교가 단절되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2015년, 부산문화재단 국제 레지던시 파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작가들과 미얀마에 약 한 달간 거주하며 '미얀마-한국 수교 40주년 기념전'을 개최했다.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누구도 수교 40주년에 대한 기념행사를 요청하거나 제안한 적은 없다. 미얀마 측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와 교류하며 전시를 열었던 뉴트레저 갤러리(New Treasure Gallery) 또한 미얀마 외교부나 문화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미얀마 작가들과 한국 작가, 우리끼리 민간 차원의 40년 수교 기념을 위해 전시를 개최한 것이었다.

2012년 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양곤 공예가 및 예술가 협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해 작가들과 양곤을 방문했다. 하지만 정치적 변화로 협회가 와해되고 기존의 회원들이 대거 물갈이 되는 등 워크숍은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중 현지 친구의 도움으로 뉴트레저 갤러리 민웨웅(Min Wae Aung) 작가를 만나게 되고 선생의 갤러리에서 민간 차원의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다. 민웨웅 선생의 도움으로 양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60여 명의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고, 우리는 하루 종일 서로의 작업을 소개하는 워크숍을 가졌다.



2014년 12월 그 민웨웅 선생이 부산을 찾았다. 한-아세안 정상회담과 함께 아세안 작가들의 전시가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렸고, 이때 이번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박태홍 선생과 박주현 작가가 민웨웅을 맞아 필자가 운영하는 전시장을 민웨웅 선생과 동료 작가들이 방문했다. 그 인연으로 이번 프로젝트가 성사되었다.

양곤 뉴트레저 갤러리는 국립미술관이 없는 미얀마의 미술관 역할을 하는 갤러리다. 선배 거장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작가를 기리는 행사를 해마다 개최하며, 현지 작가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대규모 교류 전시를 개최하기도 하는 곳이다. 2011년 뉴욕 타임스에 소개되며 세계적으로 미얀마 대표 작가로 자리 잡게 된 민웨웅 작가는 현지 작가들 대부분의 존경을 받으며 회화 전통이 뿌리 깊은 미얀마 회화의 대부로 불린다.

줄지어 걷는 승려들의 뒷모습이 그의 주된 테마다. 민웨웅의 가짜 회화 작품을 보측 아웅산 마켓에서 5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사랑받는 작가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전시에 참여한 박태홍, 조영숙, 김지은, 김혜숙, 김영미, 박은생, 박주현, 정안용 작가는 준비했던 작품들을 전시하며 전시에 참여한 현지 작가들과 친구가 되었고, 오픈링 리셉션이 끝난 후 진행한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결국 또 다시 참여자들은 서로 친구가 되었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많은 언론들이 순수미술의 한류가 시작된다고 알렸다. 미얀마에는 두 개의 미술 대학과 미술 고등학교가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우리는 양곤문화예술대학과 양곤주립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해 부총장과 교수들(총장은 다른 미팅으로 참석할 수 없었다), 예술고등학교 교장인 모노 아웅 투(Moe Nyo Aung Htoo)를 만나 앞으로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교를 돌아보고 학생들이 어떻게 예술 교육을 받고 있는지 살피면서 한국의 옛날 모습과 현재 모습을 돌아켜볼 수 있었다. 양곤에 위치한 곳곳의 미술 기관들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앞으로의 교류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생각할 수 있었다. 미얀마 컨템포러리 아트를 만날 수 있는 뉴제로 아트스페이스(New Zero Art Space)를 방문해 디렉터 에이코(AyeKo)와 큐레이터 헤이만(Haymann) 여러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 만찬을 가지기도 했다. 양곤에서 두 시간 거린 모비 Hmawbi에 위치한 뉴제로 아트스페이스의 아티스트 빌리지를 방문해 지역 어린이들과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인근의 한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고아원을 방문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뉴제로아트스페이스 디렉터 에이코는 3에이커의 땅을 매입했고 그곳에 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을 이야기했다. 망고 나무와 대나무 숲이 우거진 문순이 만든 아름다운 정글 속 미술관을 기대하고 상상하며 모두들 흐뭇해했다.

여전히 양곤은 아름다웠다. 시내 곳곳에 크레인이 올라가고 있었고 고층빌딩을 짓는 공사장이 출비해 이곳의 변화 속도를 체감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양곤의 예술가들은 정열적이었고 친절했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재밌었던 일은 한국에서 제작한 현수막이나 인쇄물은 'Myanmar-Korea 미얀마-한국'로 표기 되어 있었고, 미얀마 측에서 제작한 인쇄물은 모두 '한국-미얀마'로 제작해 결국 제목이 다른 인쇄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흐뭇하게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내가 교류하기 전 지난 40년 간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의 40년을 기약하며 친구로서 예술가로서 교류를 이어갈 마음을 나누었다.



언론 보도자료



미얀마 현지 언론 매체 기사자료1



미얀마 현지 언론 매체 기사자료3



미얀마 현지 언론 매체 기사자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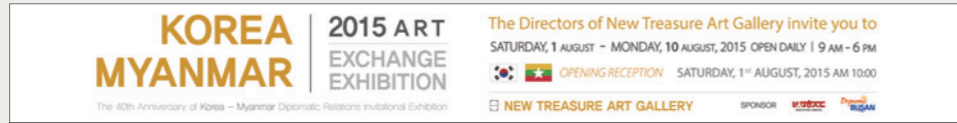


미얀마 국경방송 skynet, MITV

전시 팸플렛



“The 40th Anniversary of Korea
Myanmar Diplomatic Relations Invitational Exhibition”



2015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
미얀마활동 사진



The 40th Anniversary of
Korea- Myanmar
Diplomatic Relations
Invitational Exhibition



2015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
미얀마(활동 사진)

≡
The 40th Anniversary of
Korea- Myanmar
Diplomatic Relations
Invitational Exhibition





Japan

2015 아트라인-
두 개의 섬(쓰시마, 히로시마)

2015 아트라인 - 두 개의 섬 (쓰시마, 히로시마)

프로젝트명

2015 아트라인-두 개의 섬(쓰시마, 히로시마)

참가기간 2015. 7. 25 ~ 2015. 8. 25

장소 히로시마, 쓰시마

협력 및 진행 히로시마 예술센터, 히로시마 시립대학, 이즈미 미술관, 쓰시마 아트 판타지아 실행위원회, 쓰시마시, 토수이관, 쓰시마시 민속자료관

후원 부산문화재단

책임 코디네이터 정만영

참여 작가 김범수(회화, 설치), 김수진(조각, 설치), 김남경(조각, 설치), 김다혜(고고미술사)

현지 코디네이트 쿠로다 다이ске

행사 및 활동

1. 7월 26일 히로시마 평화의 공원 탐방

2. 7월 28일 히로시마 미술대학 3학년 전 설치참여 및 작가 간담회

3. 7월 29일 김다혜, 김수진 프레젠테이션

4. 8월 9~10일 카기모토상(도수이과) 대마도 자연환경에 관한 투어

5. 8월 14일 요츠지 요시히토(쓰시마시 민속자료관 과장) 자료관 관람 및 설명

6. 8월 15일 참여 작가 프레젠테이션, 김범수, 김남경, 구로다, 나나카라게 티아라 3층 교류센터 회의실

7. 8월 16일 왔다갔다 아트 페스티벌, 아트캠프 참여 및 전시 연계

8. 8월 22일 2015 쓰시마 아트판타지아 전시오픈(2015. 08.22 ~ 09. 27)

9. 10월 15일 아트판타지 부산 전시 오픈 (가톨릭 센터 마음밭 갤러리, 2015. 10. 15 ~ 10. 21)

언론 매체 성과물

1. 현지 언론 매체 : 나가사키 신문, 나가사키 인터넷 신문, 쓰시마 케이블 방송.

2. 국내 언론 매체 : 부산일보 2015. 10. 15 (42면)

부산문화재단 지원금 15,000,000원

참여 계기

히로시마 시립대학 미술대학 조각과 이토 토시미츠 교수 외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쓰시마에서 '쓰시마 아트 판타지아 - 아트라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 쓰시마(대마도)시, 쓰시마 시민, 히로시마 시립대학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예술활동이다.

이에 2012년부터는 부산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부산에서도 작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2명 정도는 주최 측의 초대로 부산의 작가가 같이 참여하여 국제예술교류와 평화의 장을 만들고 있다.





히로시마는 1589년부터 메이지[明治] 때까지 성읍으로서 번영하였고, 청일전쟁 이래 군사도시로서 발전하였다. 1945년 8월 6일 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의 투하로 시 전체가 초토화되었고 20만여 명의 희생자를 내었으나, 전후에 국제평화 문화도시로 발전하여 일본 내에서도 주고쿠(일본 중부) 지방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히로시마의 작가들은 히로시마 예술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문화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쓰시마시는 일본 영토지만 일본 본토에서는 100킬로미터, 한국 부산에서는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거리인 49킬로미터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특징상 쓰시마에는 일본인 관광객보다는 한국인 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은 조선통신사의 흔적과 행사뿐만 아니라 아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예술작품이 시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현 시대의 아트 프로젝트와 조선통신사, 아트캠프 등 예술활동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쓰시마 아트라인'의 참여는, 동북아 문화교류와 평화의 메시지 전파에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활동내용



1. 07월 26일 - 히로시마 평화 기념 공원 탐방

평화기념 공원에는 위령비, 자료관, 기념탑 등이 있다. 평화기념 자료관에서 원자폭탄 관련 자료, 히로시마에 세계최초로 원자폭탄이 떨어진 상황들을 둘러보고 난 뒤,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하였다. 주변에서는 원자폭탄 반대 서명 운동을 중학생들이 받고 있다.



2. 07월 28일 - 히로시마 미술대학 3학년 전 설치 참여

전공 학생들과의 미팅, 프레젠테이션 및 교류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작가들의 다양한 교류 전시의 필요성과 전시주제와 장소도 함께 논의했다. (히로시마 미술대학 : 이토 교수, 미국인 차리 교수)

3. 07월 29일 - 작품 소개 프레젠테이션

김다혜(고고미술사)씨가 '책가도(冊架圖)에 나타나는 상징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김수진 씨는 작품 소개 중심으로 발표했다.

4. 08월 9~10일 - 카기모토상(도수이관) 쓰시마 자연환경에 관한 투어 나가토메 후미히코(코린샤 출판사 대표) 쓰시마 역사 투어

나가토메 후미히코 씨는 쓰시마에서 역사와 관련된 책을 지속적으로 출판하는 회사의 대표다. 쓰시마의 역사적 지식을 이용한 투어에서 역사적 배경, 지리적 특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 카기모토 타에코 씨는 쓰시마의 자연환경과 일반 관광객이 찾아보기 힘들 곳까지 소개해주며 쓰시마의 자연과 해양 문화에 대해 소개해 주었다.

5. 08월 14일 - 요츠지 요시히토(쓰시마시 민속자료관 과장) 자료관 관람 및 설명

요츠지 씨는 자료관의 과장이면서 쓰시마 아트 판타지아의 실행 위원 중 한 명이다. 조선통신사에 관련된 역사적인 자료들이 전시된 자료관을 같이 돌며 자세한 설명을 해주어 작가들에게 소중한 작품 연구의 기회가 되었다. 우호적 한일관계를 위한 양국 간 역사 이해와 아트판타지아 역할에 대해서도 간단한 음료를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6. 08월 15일 티아라 3층 교류센터 회의실 - 아트판타지아 참여 작가, 운영위원 및 지역주민, 한일 참여 작가 작품 프리젠테이션 (김범수, 김남경, 구로다, 나나카라게)

아트 판타지아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한국 작가 2명 일본 작가 2명의 작품을 살펴보고, 지역 연구와 개인 작품의 발전, 몇 년간의 아트 판타지아 작품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다.

7. 08월 16일 - 왔다갔다 아트 페스티벌, 아트캠프 참여 및 전시 연계



'부산 후쿠오카 왔다갔다 아트 페스티벌'은 몇 년 전부터 부산과 후쿠오카 사이를 기획자나 예술가들이 오가며 문화예술 거점 및 활동을 둘러보고, 다양한 워크숍, 세미나, 전시, 공연 등을 해오는 활동이다. 올해는 부산과 후쿠오카의 중간 지점인 쓰시마에서 교류활동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쓰시마 아트 판타지아와 연계하여 전시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면서 자연스럽게 교류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아오시노 사토 해변 캠프장에서 한중일 삼국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들을 주워 작품으로 제작하는 워크숍 등을 진행하였다.

8. 08월 22일 - 2015 쓰시마 아트판타지아 전시 오픈 (2015. 08. 22 - 09. 27)

일본의 히로시마 시립대학 미술대학 조각 전공 졸업생과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한 작가와 후쿠오카, 동경, 교토, 오키나와 등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들이 참여했고 한국에서는 부산문화재단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작가가 함께 하였다. 또한 부산 후쿠오카 왔다갔다 아트 네트워크에서 연계 진행하는 '왔다갔다 아트 캠프'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도 같이 전시하게 되었다.

전시장소 : 아트센터 코비토, 토수이관, 나이인 분교, 아오야기 주택, 쓰시마시 민속 자료관 1층, 이이즈카 선물상점



9. 10월 15일 - 아트판타지 부산 전시 오픈(가톨릭 센터 마음밭 갤러리, 2015. 10. 15 ~ 10. 21)

쓰시마 아트 판타지아에 참여했던 작가들의 작품들을 일부 모아서 부산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아트라인을 만들자는 올해의 전시 방향에 의해 만들어진 전시로 부산 가톨릭센터, 부산 후쿠오카 왔다갔다 아트 네트워크,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부산문화재단의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 쓰시마 팀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 참여 작가 약력

≡

김다혜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학사 졸업(2012) /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 졸업(2015)

경력

- 2010. 1. 5~3. 1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 인턴
- 2012. 8. 1~2013. 5. 31 울산시립박물관 교육홍보실 연구원
- 2013. 7. 1~2014. 2. 10 석당학술원 지역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 2014. 3. 1~현재 석당학술원 지역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
- 2014. 2. 1~현재 일맥문화재단 사원

논문

- 2011 경기도박물관 소장 장한종의 <책가도> 병풍 연구
- 2014 조선 후기 불화의 법의에 표현된 식물문 연구

김수(본명: 김수진)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조소전공 및 동대학원 졸업

Solo Exhibition

- 2015 김수 설치전(벽촌아트갤러리, 부산)
당신의 조각, Your piece展(미부아트센터, 부산)
- 2014 김수진 개인전(부산대학교 아트센터, 부산)

Group Exhibition

- 2015 설치미술, 사하 - SAHA展(울속도문화회관,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展(부산문화회관, 부산)
내 서랍 속 이야기-바다展(춘자아트갤러리, 부산)
온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만나는 미술展(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
미약한 관계展_김수/신원준 이인전(이연주갤러리, 부산)
현대 조각 오늘과 내일 펼쳐보기展(부산시청, 부산)
6단 STICK展(갤러리움, 부산)
새벽별展(부산시청, 부산)
마주하는 시간展(해운대문화복합센터, 부산)
- 2014 맥가이버展(이연주갤러리, 부산)
제40회 부산미술대전(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전국조각가협회 정기展(미술세계갤러리, 서울)
부산시민공원개관 기념 Blind展(부산시민공원 미로갤러리, 부산)
- 2012 창원아시아미술제(창원성산아트홀, 창원)
출발을 위한 제언展(부산대학교 아트센터, 부산)

**2015년 쓰시마 팀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
참여 작가 약력**



- 2011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조소전공 27회 졸업전시(부산디자인센터, 부산)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송도해수욕장, 부산)
오타쿠展(제이스퀘어, 부산)
마지막 사춘기展(한솔갤러리, 부산)

Awards

- 2014 제40회 부산미술대전 우수상
제4회 거리갤러리미술제 입선
- 2013 제3회 좋은데이미술대전 최우수상
- 2011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 특선

Residence

- 2015 Hiroshima_Tsushima Art Fantasia(Nacarai Tosui Museum, Japan)

작품소장

- 부산대학교 예술관

김범수 신라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졸업(2003)

개인전

- 2015 그림으로 시 그리기(갤러리움, 부산)
- 2012 움직이는 얼굴전(센텀갤러리, 부산)
- 2011 리얼리즘판타지(부산시립미술관/금련산갤러리, 부산)
- 2010 움직이는얼굴전(팝아트팩토리, 서울)
- 2009 김범수개인전(채스아트센터, 부산)
- 2006 움직이는얼굴(갤러리락, 서울)

주요단체전

- 2013 제2회 한일 리사이클링아트전(부산시청, 부산)
작은 그림전(갤러리에그, 부산)
- 2012 동화적표상과 상상전(갤러리 움, 부산)
way's trace(가양갤러리, 부산)
- 2011 왔다갔다 프로젝트(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레이션소갤러리, 일본)
민통선DMZ 국제예술제(석장리미술관, 경기)
갤러리 위 메디컬 아티스트 공모당선작가전 병원 순회전, 서울
문화바우처 착한그물/시각미술 참여
부산을 이끄는 신진artist project9(문화재단/부경대, 부산)

- 2009 경기미술대전초대작가(경기예술의전당, 수원)
- 2009 리 제너레이션 아트(아트인팩토리, 부산)
An underplot전(샘갤러리, 부산)
- 2007 움직이는 얼굴(갤러리 락, 서울)
- 2005 김범수개인전(캐논갤러리, 부산)
니밧대로전(반디/엄태익갤러리, 부산)
지리산범왕리환경설치전(지리산범왕리, 범왕리)
APEC기념초대전(몽마르뜨, 부산)
- 2004 Transition2005기획전(서울, 부산, 광주, 청주, 포항 외)

기타주요경력

- 2012 문예진흥기금 / 평면부분(부산문화재단)
- 2011 부산시립미술관 신진작가공모선정(부산시립미술관)
갤러리 위 메디컬 아티스트 공모당선(갤러리 위)
- 2010 팝아트팩토리공모선정작가(팝아트팩토리)
- 2010~2012 원도심문화공간또따또가 입주공모선정(부산문화재단/부산시)
- 2010 문화예술인 승선레지던시사업공모선정(부산문화재단/대형선망협회)
- 2009 문예진흥기금사업 / 설치부분(부산문화재단)
- 2009~2010 산복도로1번지프로젝트(오픈스페이스배)

정만영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조소전공 졸업(1998) / 동경예술대학 대학원 미술연구과 첨단예술표현과 졸업(2010)

개인전

- 2015 Reflected Sound전 (히로시마 예술센터, 일본)
- 2014 정만영 사운드 설치전-아래로·기억된·소리, 물(스페이스 닷, 부산)
- 2012 Sound photo – 폭포시리즈(김스아트필드 미술관, 부산)
- 2011 Cycling CommuniCus(아트 스페이스 테트라, 후쿠오카)
- 2009 SOUND CUBE 1.5 그림 그리는 기계(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 2006 정만영설치전 -엄태익갤러리 기획(엄태익갤러리, 부산)
- 2005 정만영영상설치전 'between'(아트인오리, 부산)
- 2004 유쾌한 미술 재미있는 미술관전(거제문화예술회관, 경남 거제도)
- 2003 IMAGE TV, TV IMAGE展(대안공간 반디, 부산)
- 2002 정만영 설치전 '태백산기행'(부산 민주공원 전시실, 부산)
SIGN & NET展(전경숙 갤러리, 부산)
- 1998 정만영 설치전-카멜레온 (부산대학교 문창 회관 전시실, 부산)

**2015년 쓰시마팀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
참여 작가 약력**



중요 단체전

- 2015 재생유화전(동아대학교 석당미술관, 부산)
쓰시마 아트 판타지아(쓰시마, 일본)
- 2014 창원조각비엔날레(마산 돌섬 팔각정, 창원)
지리산 아트 프로젝트-우주예술집(실상사, 남원)
아트쇼 2014, 아트악센트(제2백스코, 부산)
아시아프 드로잉 특별전(문화역서울284, 서울)
- 2013 부산현대미술의 오늘 - 청년을 만나다(동아대학교 석당미술관).
'항구도시의 만남전'(부산진역사 전시공간, 부산)
Site Explorers전(갤러리 ADO, 쿠마모토, 일본)
소리숲-부산 바다미술제(송도해수욕장, 부산)
대마도아트판타지아(대마도 이즈하라, 히타카츠, 일본)
키워드 부산(미부아트센터, 부산)
TOUCH(NEW ZERO ART SPACE, 미안마 양곤)
SIGHT AND SOUND(갤러리 움3F, E-Space Project, 부산)
感性공감2013(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큐빅하우스, 김해)
- 2011 쫓, 귀기울려 봐(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 미술관, 부산)
- 2010 아이치 트리엔날레 기획공모 c일정(나고야 초자마치, 일본)
눈먼자들의 도시(보안여관, 서울)
'빛2010'(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2009 기류재현 15(군마현 기류, 일본)
나카노조 비엔날레(군마현 나카노조, 일본)
- 2007 도심, 자연, 인간 속 예술(서울문화재단 전시공간, 서울)
- 2006 2006 부산비엔날레 현대미술전(부산시립미술관, 부산)
door to door4(대안공간 풀, 서울)
'빛2006'하정웅 청년 작가 초대전(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외 다수

레지던시프로그램참여

- 2014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 캄보디아 프놈펜
- 2012~2014 대마도아트판타지아 레지던시 프로그램(신-조선통신사) 참여
- 2014 원도심창작공간 또따또가 입주작가
- 2013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 미안마 양곤
- 2010 아이치트리엔날레 레지던시 작품제작

김남경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조소전공 졸업

개인전

2015 기억을 걷는 시간, 신진작가 지원전(갤러리봄, 부산)

단체전

- 2015 Young Artist(동아대학교 석당미술관, 부산)
부산대학교 제30회 졸업작품전(부산대학교 아트센터, 부산)
- 2012 Living Dots(부산대학교 B-Square, 부산)

**쓰시마 팀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 참여 작가
활동후기**



— **정만영**

2012년 여름, 처음으로 쓰시마 아트 판타지아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쓰시마(대마도)와 교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부산에서 아른거리듯 보이는 실루엣에 지나지 않았던 쓰시마의 방문으로 인해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지정학적 위치와 지형, 그리고 대륙을 바라보는 관점, 2차 대전, 조선통신사, 덕해옹주, 언어 등 알아 가면 갈수록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듯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12년, 13년, 14년 지속적으로 교류 활동에 '쓰시마 아트 판타지아'라는 이름으로 참여하면서 매 해 조용하게 활동한 적이 없을 정도로 우여 곡절이 많았다. 12년에는 독도 문제로 두 나라가 한국과의 외교적으로 가장 불안한 상황에서 참여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의 대통령 사진을 올리며 매일 국제적 발언을 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에 참여한 대응을 하던 때였다. 또한 13년에는 대마도 불상 도난 사건으로 거의 모든 공식적인 교류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아트 판타지아는 진행되었다. 성황리에 진행 될 리 없었지만 한국 관광객들은 이즈하라 시내를 가득 채우며 아트 판타지아 전시를 축하해주는 듯했다. 가장 가까운 외국 이면서 일본 국토에서보다 한국 부산에서 더 가까운 곳이 쓰시마이기에 여전히 인기가 많은 아름다움 섬이다.

히로시마 시립대학 예술학부에서는 쓰시마 아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나오시마, 쇼도시마 등의 섬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쓰시마의 매력적인 부분들을 소개하며 일본 전국에서 활동하는 유명 작가들도 참여하는 등 참여 작가 범위가 해마다 넓어지고 있었고, 쓰시마에서 전시를 여는 지역도 리서치를 통해 넓혀가고 있다. 올해는 거점공간을 '나이인 분교'와 '코이비토' 두 곳을 확보하여 예술가들이 쓰시마에 와서

**쓰시마 팀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 참여 작가
활동후기**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나이인 분교는 이즈하라에서 남쪽으로 20분 가량 차로 달리다 보면 왼쪽으로 보이는 해안가 마을의 폐교를 거점으로 만들고 작업공간과 전시공간, 그리고 숙박공간을 마련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인터넷 광케이블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빼먹지 않고 얘기한다. 코비토는 이전에 스나크 술집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장기간 빌려 작가들이 직접 개보수하여 전시공간과 숙박공간을 마련하였다. 이즈하라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쓰시마 아트 판타지아의 중심적인 역할들 한다고 보아 '코비토 예술 센터'라는 아주 거창한 이름도 붙였다. 예술관계자나 지금까지 참여했던 작가, 또는 쓰시마에 대해 리서치나 작품활동을 하고 싶은 예술가들에게 열려 있다.



해마다 새로운 곳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아트 판타지아 관계자들은 올해 부산에서 전시를 해보자는 제안을 했었고 아트 판타지아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참여했던 작가들을 포함하여 한국 작가와 일본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 부산 가톨릭센터에서 전시를 열었다.

아트 판타지아 실행위원들뿐만 아니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쿠로다 다이스케, 마루하시 미츠오, 나나카라게 아야노 등의 작가들은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벌써 2016년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부산에 레지던시 교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근 부산에서 약 한 달간 거주하며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회도 하면서 부산과의 교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히로시마, 쓰시마, 부산의 교류는 조선통신사의 교류가 좋은 역사적인 사례가 되어 있다. 앞으로도 부산과 히로시마, 쓰시마와의 문화예술 교류가 관심과 배려로써 새로운 형태로 지속되길 바란다.

— 김다혜

내리쬐는 태양 별에 피부가 후끈후끈 익어가는 여름날. 줄지어 서 있는 많은 인파, 도로를 횡단하는 노면전철, 잘 정돈된 도시가 눈앞에 펼쳐졌다. 히로시마의 첫인상이다. 마중 나온 히로시마 시립대학의 상냥한 조교 나나카라게 아야노상이 우리가 머물 숙소로 안내해주었다. 그날은 마침 불꽃 축제가 열렸고, 우리는 하늘에서 터지는 불꽃의 환영인사를 받으며 레지던시를 시작하였다.

1945년 히로시마 상공 580m 지점에서 핵폭탄이 터졌다. 이로 인해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고, 저마다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여전히 그때의 일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해마다 추모하고 기리고 있다. 우리는 때마침 애도의 기간에 레지던시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의 분위기를 눈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히로시마에 있는 동안 원폭돔 주변의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에서는 원폭 관련 전시가 개최되고 있었다. 전시의 주제는 '전쟁과 평화'였다. 전쟁과 평화라...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



지만 전쟁의 슬픔까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전시된 원폭 투하 후 잿더미가 된 마을의 사진, 살갓이 뜯겨 피 묻은 옷, 찌그러지고 터진 생활용품들을 보고, 희생자를 그린 작품을 바라보며 마음이 너무 저리고 아팠다.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았을 선량한 시민들까지 하루아침에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어쩌면 전시를 보며 느낀 애잔한 마음보다는 누군가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일본의 의도일지도 모르지만, 그 지역의 역사 속 비애와 슬픔을 헤아릴 수 있게 되어 이번 레지던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히로시마는 이런 사연 뒤에 또 다른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다. 거의 폐허가 된 도시를 기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재생한 것이다. 넓은 도로 중앙에 놓인 노면전철은 히로시마의 잘 정돈된 도시이미지를 한층 더해준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우리와 함께 대마도에서 레지던시를 진행한 히로시마 시립대학 예술학부의 시설이었다. 나는 미술사를 전공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작업실의 크기와 빼곡히 배치되어 있는 예사롭지 않은 도구와 기계들을 보며 여기 학생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런 환경에서는 원들 못 만들까 싶을 정도였으니 같이 온 작가들은 더했을 것이다.

히로시마를 다녀온 뒤 본격적인 레지던시를 위해 대마도로 향했다. 대마도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외국이었는데, 외국인보다 한국인이 많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남북으로 긴 지형 때문인지 생각보다 섬이 커서 하루 만에 다 돌러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허무하였다. 대마도에서는 주로 이즈하라에 있었다. 이즈하라는 조선통신사가 거쳐 간 거점 중 한 지역으로 1811년부터 200년간 12차례의 외교사절단 파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메인 거리에는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벽화 등 그림들이 보였다.

대마도는 아소만 바다 전망도 인상적이었지만 작은 해안가에 떠밀려온 해양쓰레기가 특히 눈에 띄었다. 태풍으로 파도가 거세지면 한국에서부터 페스치로폴, 폐목재, 부표 등이 대마도까지 와서 모인다고 한다. 대

**쓰시마 팀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 참여 작가
활동후기**

마도 레지던시를 하는 작가들은 주로 해안가에서 재료를 주워 작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의 가책을 받아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여 환경정화를 실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히로시마 시립대학에서 온 작가들과 함께 대마도 레지던시 공간과 서로의 작품 활동을 공유하며, 작가들 옆에서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게 지금은 정말 좋은 추억이 되었다. 역시, 영감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과 고뇌에서 비롯된다는 걸 배운 것 같다. 2015년 여름, 반전의 히로시마와 은하수 흐르는 쓰시마의 밤을 기억하며...

— **김남경**

나에게는 먼 일본이었지만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 대마도. 대마도는 평온하고 조용히 반짝이는 섬이다.

늦은 밤 산 위에서 본 하늘에는 눈앞에도, 머리 위에도, 뒤로 돌아도 온통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두운 밤에 까만색보다 별이 더 많던 하늘을 잊을 수 없다. 대마도는 그 하늘처럼 순수했다.

잠시 지내는 동안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의 시골에 와 있는 듯 했다.



첫날 코이비토를 보는 순간에는 큰 실망을 했다. 근사한 미술관 갤러리를 생각했는데, 막상 그들이 아트센터라고 불렀던 곳은 어떠한 특색도 없는 초라한 건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은 그 어떤 미술관이나 갤러리보다 멋지고 아름다운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록 보여지는 화려함은 없지만 그곳에서 자신을 가꾸고 열심히 생활하는 작가들의 숨결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일본 대마도의 생활은 시작되었다.

처음 2~3일은 새로운 거주지와 지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고, 금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되었다. 일본 작가들의 도움으로 나는 빠르게 작업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고, 주변의 낯은 집과 빈 집, 그리고 반쯤 지어진 새 집 사이에서 작업 재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수집한 재료를 이용하여 대마도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작품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사실 처음부터 집이라는 주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마도의 낯은 집과 새로 지어지는 집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집을 떠나 새로운 집에서 느꼈던 불안한 감정이 집을 만들게 된 이유라 생각한다. 그래서일까. 아름답고 근사한 집을 만들고 싶었지만, 내가 만든 집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불안하고 위태로운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종이, 나무, 쓰레기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손조롭게 작품을 만들어갔다. 8월 22일 전시 오픈하는 날까지 15일 동안 개성 있고 특이한 구조의 7개의 집을 만들었다. 7월말 부터 시작된 '아트판타지- 두 개의 섬 프로젝트'를 통해 나는 잠시 머무는 이방인이면서 거주자로서 집을 해석하고 관찰한 흔적을 담아 작품에 표현했다.



히로시마 탐방을 하면서 원자폭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상처에 아파하는 일본의 모습에 무겁고 복잡했던 마음이 대마도에서 힐링된 것 같다. 대마도에서 만난 사람들은 항상 여유롭고 친절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었다.

오래 알고 지낸 것처럼 느껴지는 카기모토상은 정말 좋은 사람. 언제나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다음에 꼭 보러 갈게요.

쓰시마 팀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 참여 작가
활동후기



— 김수진

찌는 듯이 더운 날 이즈하라의 어느 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관광지 치고는 고즈넉한 맛이 있는 조용한 동네였다. 이리저리 둘러보니 구석구석 매력이 숨어 있었다. 부산과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일본이라 하여, 한국의 어떤 모습을 조금 닮지 않았을까 하는 색안경을 끼고 보아도 영락없이 떠판이었다. 지리적 으로 가까이 하여도 이리 닮은 점이 없을 수 있었다. 해안을 넘어갈 때 울창한 숲을 통과한 적이 있었는데 대마도 곳곳에 이런 숲이 즐비하다 하였다. 부산과는 다른 수종이 가득 있어 또 한 번 이질적인 장관을 보여주었다. 해안에 와보니 쓰레기가 구석구석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부산의 바다도 다를 것이 없지만 자세히 보니 웃긴 모습이었다. 근접한 나라의 언어가 적힌 각종 쓰레기가 이 나라의 지리적 좌표를 말해주고 있었다. 해안에서 나무를 주워 작업에 쓰기로 하였다. 바닷가에서 주운 나무는 땅의 것과는 달랐다. 염분과 바닷바람, 파도에 훈련되어 단단히 예쁜 모습으로 단장되어 있었다. 나뭇가지 하나에 그 오랜 시간과 장소가 담겨 있었다. 이리도 아름다울 수 있던 말인가. 조용한 마을 이즈하라의 이 작은 나무 조각 하나도 나에게 몽클한 여운을 주었다. 가끔씩 낮은 건물들의 그곳이 생각난다. 가깝지만 타국의 느낌을 여실히 보여 주었던 그곳이. 한국에서 바쁜 일상에 치여 숨고르기조차도 힘들 때 다시금 그리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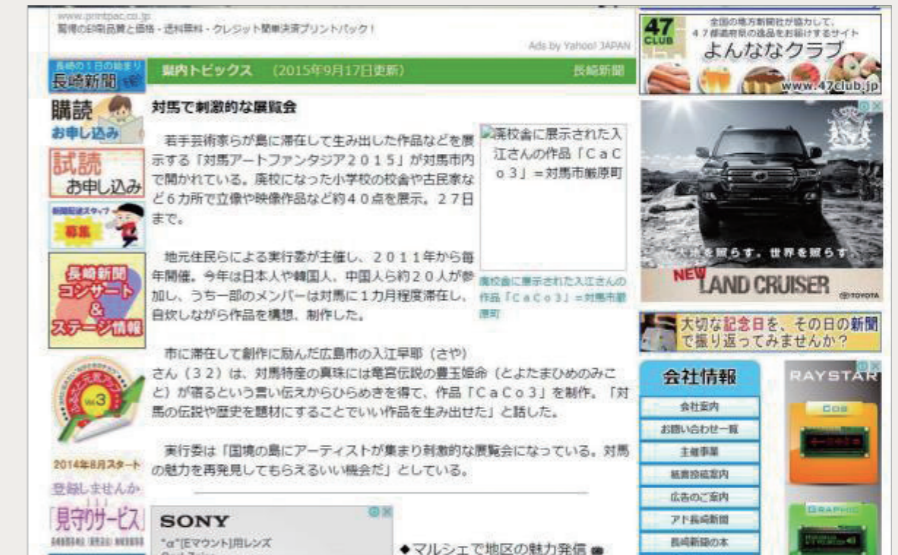
언론 보도자료



나가사키신문 2015. 8. 17



나가사키신문 2015. 9. 17



나가사키신문 2015. 9. 17

전시 포스터 및 전단지



아트 판타지아 인 부산(부산 가톨릭센터)

가장 빠른 [부산문화재단] 소식! 실시간 공유!

부산문화재단
최신소식 공유하기

f 부산문화재단 Q



예술창작지원은
어떻게 만나요?

@부산문화재단

KAKAO
TALK

문화행사 사진은
인스타그램으로!

#부산문화재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카카오톡 친구찾기에
[부산문화재단]을 검색 하신 후
친구추가를 해주세요.



발행 | (재)부산문화재단
발행인 | 이 문 섭
발행일 | 2015년 12월 8일

기획 | (재)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 국제협력팀
진행 | 박승환(팀장), 강민규(담당자)
코디네이터 | 김지은, 정만영
사진, 글 | 각 팀 코디네이터, 국제협력팀

발행처 | (재)부산문화재단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감만창의문화촌
Tel.051-744-7447 Fax.051-744-7708
www.bscf.or.kr

디자인, 제작 | 다인문화사
051-242-4839

발행부수 | 500부
가격 | 비매품

copy right (재)부산문화재단
저작권법상 허용된 것 이외에 본 내용물의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 744 7707 F. 051 744 7708 ~ 9
SNS관련문의 기획홍보팀 051-745-7223~4